

세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

최근 다양한 이유로 미국 세일오일 업체들 손익분기점의 상승 가능성 제기
 달러스 연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손익분기점이 상승했으나 그 폭은 크지 않음
 지난 주 rig 수가 감소세를 보임. 2월 초처럼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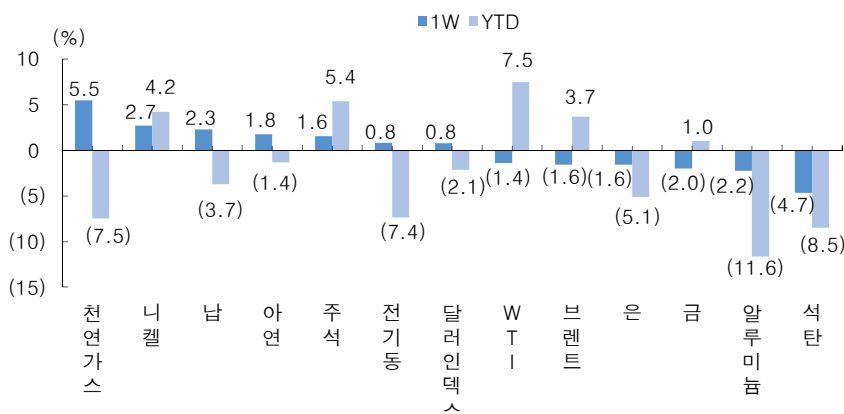
미국 세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BEP) 유가 수준은 소폭 상승

주요 원재료인 모래 가격의 상승,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고용 확대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미국 세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이 상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달러스 연준이 매년 시행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미국 세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 평균은 배럴당 52달러로 작년에 비해 상승했다. 다만 작년 손익분기점 평균이 배럴당 50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하방경직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우디가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rig 수는 예상과는 달리 7개 감소했다. 지난 2월 초처럼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가와 금 가격은 하락한 반면 비철금속 가격은 반등

사우디가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지만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금과 비철금속 가격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악화되면서 금 가격은 하락한 반면 비철금속 가격은 반등에 성공했다.

[그림 1] 원자재 주간 수익률(3/26~3/29)



서태종

seotaejong@truefriend.com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유가
수준이 상승

손익분기점이 상승하는 이유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음

다만 달러스 연준이 발표한
자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음

셰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BEP)은 얼마나 상승했을까?

유가가 상승하고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BEP)이 되는 유가 수준 역시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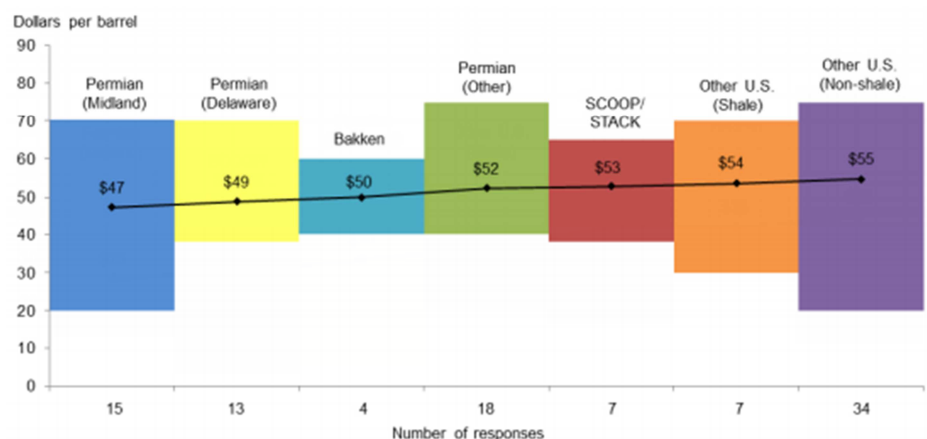
손익분기점이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최근 1)셰일오일 생산량 증가로 인해 수압파쇄를 위한 모래 수요가 높아지면서 모래 가격이 상승하고 2)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셰일오일 업체들의 이자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사실 셰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양한 셰일오일 업체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유정에 따라 손익분기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론에서 보도하는 셰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 역시 기준이 불명확하다. 시추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시추 후 운송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익분기점이 편차를 보인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셰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기 쉽지 않다. 하지만 달러스 연준(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달러스 연준은 2016년부터 매 분기마다 에너지 관련 업체들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동향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텍사스 주의 경제에서 에너지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수요일(28일) 달러스 연준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수익성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유정을 시추하기 위해 필요한 WTI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문조사였다. 설문조사는 올해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98개의 E&P 회사들이 참여했다.

[그림 2] 수익성을 감안시 새로운 유정을 시추하기 위해 필요한 WTI 수준은? - 2018년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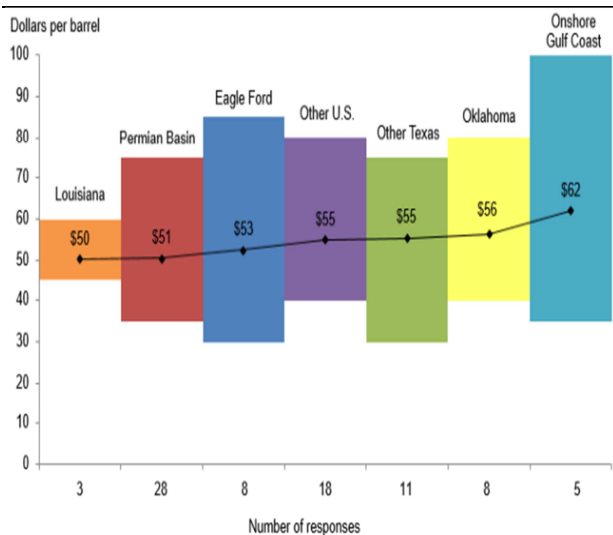
올해 미국 E&P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은 52달러

지역별로 편차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셰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7~55달러(WTI 기준)의 범위를 나타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답한 모든 E&P 회사들의 손익분기점 평균은 배럴당 52달러였다.

이는 전년 대비 4% 상승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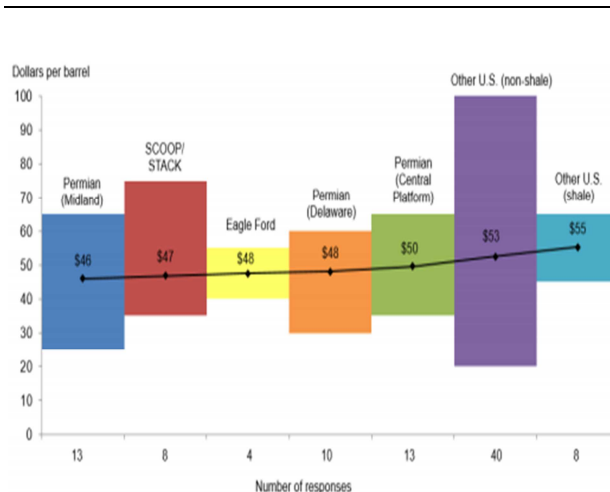
그렇다면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상승했을까? 작년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7년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50달러였다. 올해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52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약 4% 상승한 것이다. 미국에서 셰일오일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Permian지역의 올해 손익분기점은 50달러로 전년대비 4% 상승했다.

[그림 3] 새로운 유정 시추를 위한 적정 WTI -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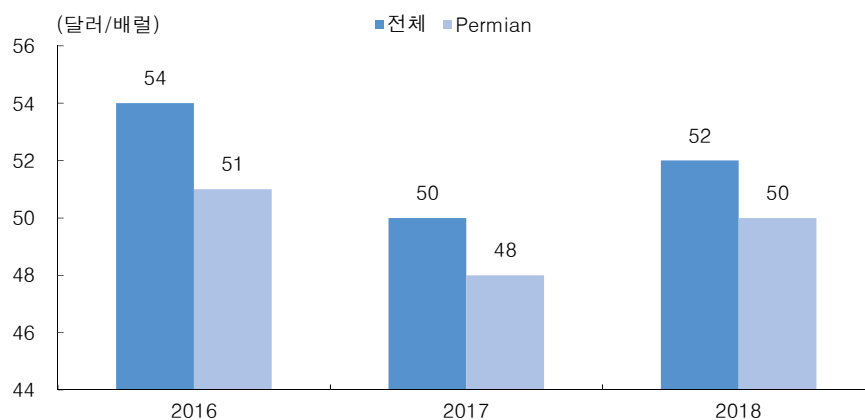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새로운 유정 시추를 위한 적정 WTI - 2017년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한국투자증권

[그림 5] 델러스 연준 설문조사에 따른 연도별 손익분기점 평균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한국투자증권

작년과 비교시 올해
손익분기점 범위 자체가
소폭 상향조정

[그림 2]와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7년과 2018년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을 비교해보면 손익분기점 범위 자체가 소폭 상향조정 되었다. 특히 Permian의 Midland와 Delaware에서의 손익분기점 최대값을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각각 65달러, 60달러였던 반면 올해에는 70달러로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평균적으로 비용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았음

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 상승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 Permian의 Midland와 Delaware에서의 손익분기점 평균값이 작년에는 각각 46달러, 48달러였지만 올해는 47달러, 49달러로 1달러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 지난해 평균 유가(50.9 달러) 대비 올해 1분기 평균 유가(62.9 달러)는 12달러 상승했다.

증가한 산유량과 감소한 미국 rig 수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5월 12일 이란 핵 협정 갱신 시한을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6월 22일 OPEC 정례회의를 앞두고 사우디가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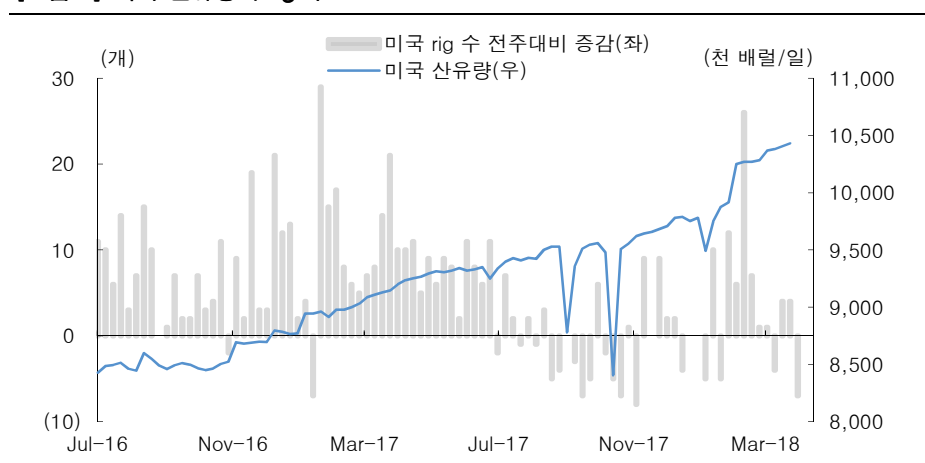
사우디는 감산 합의 연장
의지를 재차 피력

실제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OPEC과 러시아가 단순히 1~2년이 아닌 10~20년간 장기적으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직 러시아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우디의 감산 합의 연장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산유량은 증가한 반면
rig 수는 오히려 감소

지난 자료("전 고점에 도달한 유가", 3/26)를 통해 유가가 상승할수록 미국 산유량과 rig 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주 미국 산유량은 2.6만 b/d 증가한 1,043.3만 b/d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지만 rig 수는 오히려 7개 감소했다. 이는 약 4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미국 산유량과 rig 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지난번처럼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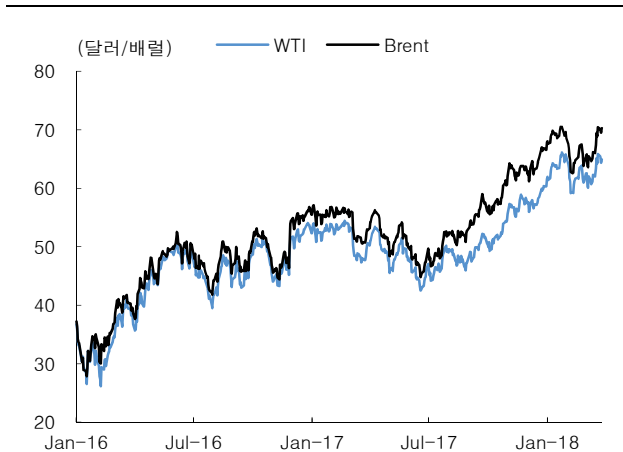
앞으로 미국 rig 수의 감소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의 감산 합의 연장 의지 및 rig 수 감소 등을 감안하면 지난 2월 초 전 고점에 도달했을 당시처럼 유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

에너지: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및 미국 원유 재고 증가로 유가는 하락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감산 합의 연장 기대감 등으로 유가가 전 고점까지 상승한 가운데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졌다. 게다가 미국 원유 재고가 164만 배럴 증가하고 미국 산유량 역시 2.6만 b/d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이로 인해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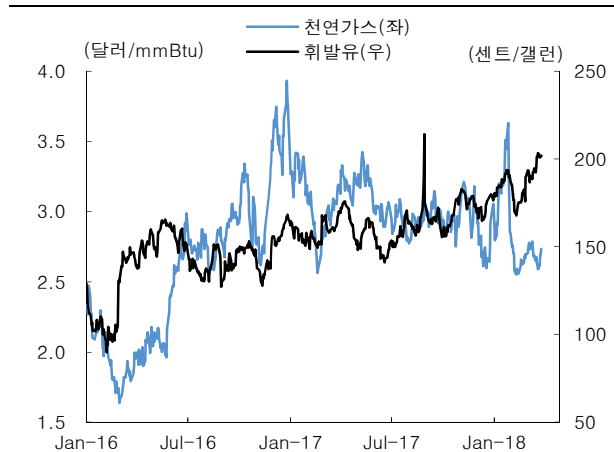
다만 OPEC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기대감에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OPEC과 러시아가 1~2년이 아닌 10~20년간 장기적으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OPEC이 감산 합의 목표를 변경하는 방안 역시 고려 중이라는 설이 제기되었다. 그 동안 OPEC은 OECD 석유재고를 지난 5년 평균치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를 지난 7년 평균치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감산 합의가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림 7] WTI, Brent 유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천연가스, 휘발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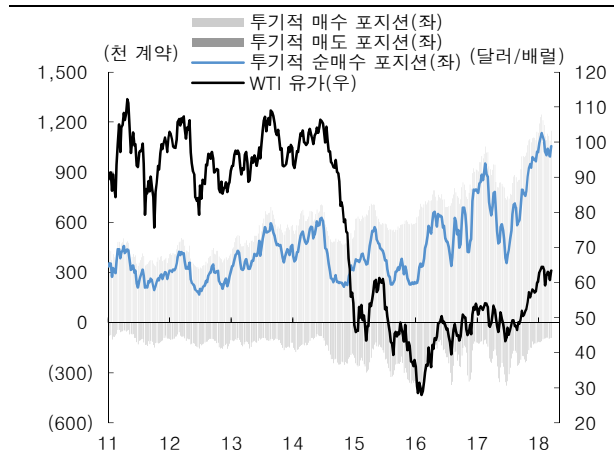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석탄 가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WTI와 Brent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64만 배럴 증가했다. 휘발유(Motor Gasoline) 재고와 증류유(Distillate Fuel Oil) 재고 역시 각각 347만 배럴, 209만 배럴 감소했다. 가동률은 전주 대비 0.6%p 상승하며 92.3%를 기록했고 원유 생산은 1,043만 b/d로 전주 대비 3만 b/d 증가했다. 원유 수출은 158만 b/d로 전주 대비 1만 b/d 증가했다.

미국 원유 rig수는 지난 주 대비 7개 감소했다. 최근 저점에 비해서는 481개 증가했으며 전년도 수준과 비교시 135개 많은 수준이다.

〈표 1〉 미국 원유 재고 및 생산량

(단위: 천 배럴/일, %p)

구분	이번주 2018-03-23	지난주 2018-03-16	증감	4주 전 2018-02-23	증감	전년동기 2017-03-24	증감
원유 재고	429,949	428,306	1,643	423,498	6,451	533,977	(104,028)
휘발유 재고	239,593	243,065	(3,472)	251,817	(12,224)	239,721	(128)
증류유 재고	128,954	131,044	(2,090)	137,985	(9,031)	152,910	(23,956)
쿠싱지역 재고	31,227	29,423	1,804	28,785	2,442	67,731	(36,504)
원유 생산	10,433	10,407	26	10,283	150	9,147	1,286
원유 순수입	6,570	5,504	1,066	5,837	733	7,214	(644)
원유 수입	8,148	7,077	1,071	7,282	866	8,224	(76)
원유 수출	1,578	1,573	5	1,445	133	1,010	568
가동률	92.3	91.7	0.6	87.8	4.5	89.3	3.0

주: 증감은 이번 주 수치 대비 증감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표 2〉 미국 rig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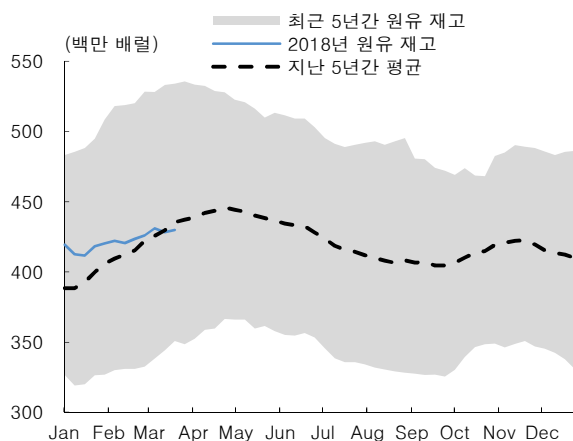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이번 주 2018-03-30	지난 주 2018-03-23	4주 전 2018-03-02	전년동기 2017-03-31	고점 2014-10-10	최근 저점 2016-05-27
원유 Rig	797	804	800	662	1,609	316
증감	-	(7)	(3)	135	(812)	481
가스 Rig	194	190	181	160	1,606	81
증감	-	4	13	34	(1,412)	113

주: 증감은 이번 주 rig 수 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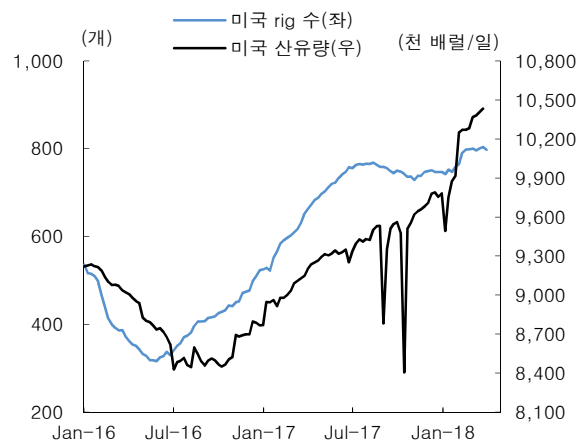
자료: Baker Hughes,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미국 원유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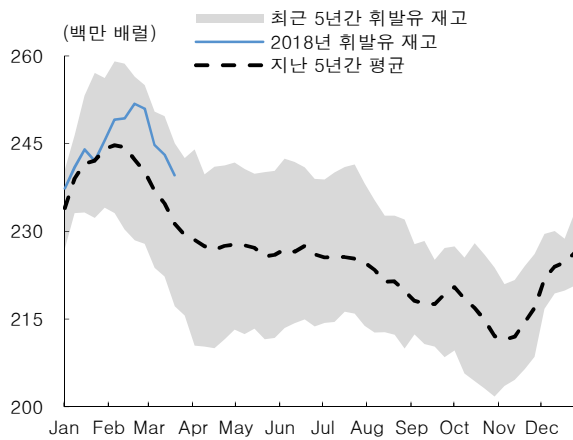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미국 산유량 및 rig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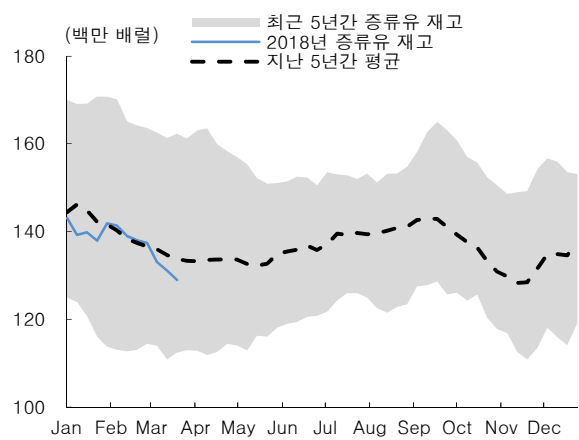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미국 휘발유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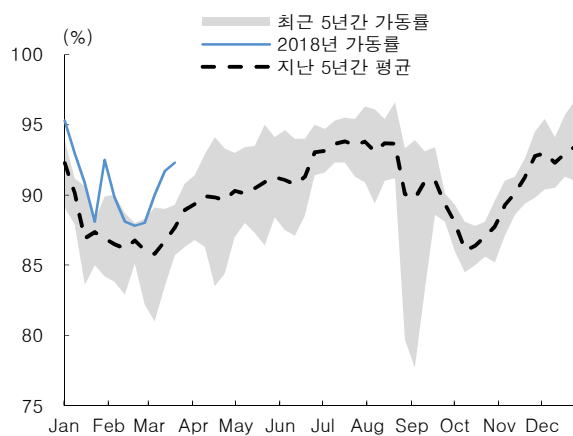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미국 증류유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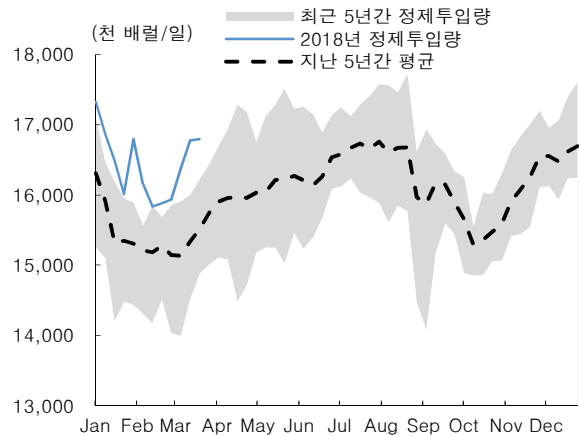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미국 정유시설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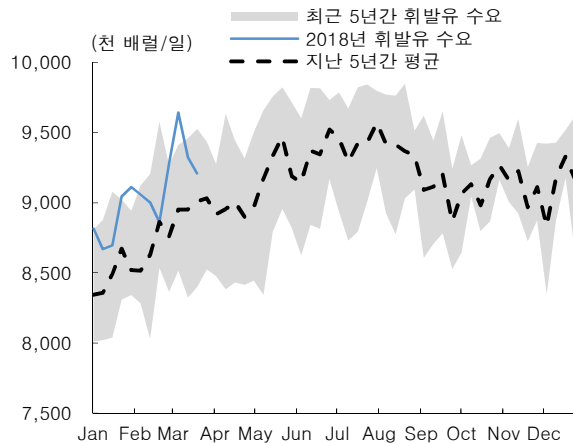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미국 정제투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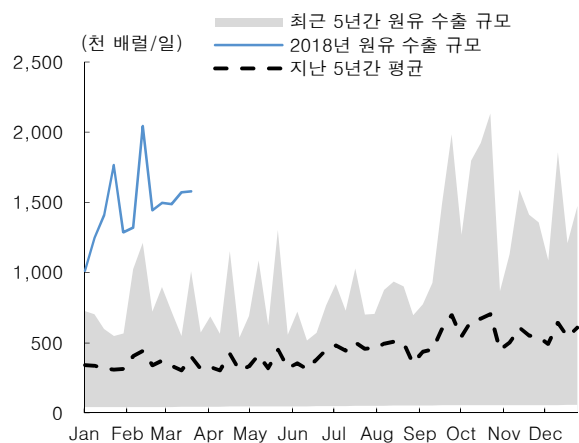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7] 미국 휘발유 수요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미국 원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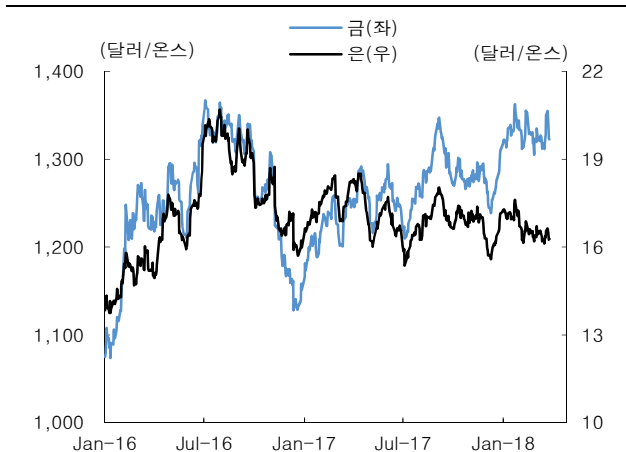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귀금속: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금 가격은 하락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약화된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금 가격은 하락했다. 금(+2.9%), 은(+2.0%)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팔라듐(-1.7%), 백금(-0.2%)은 하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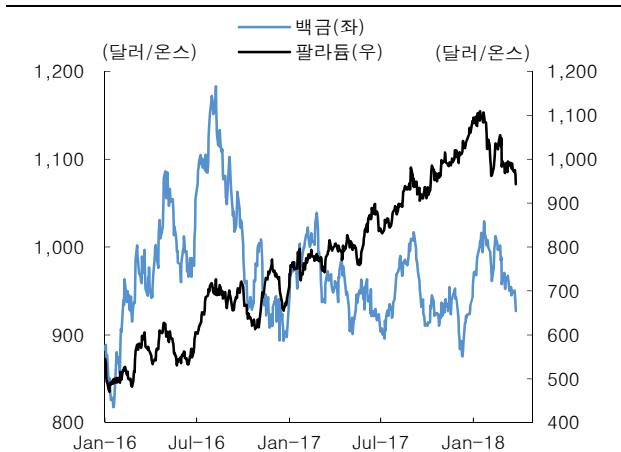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급등했던 금 가격은 이러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무역전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 역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무역 불균형은 이성적인 태도로 협상을 통해 균형을 촉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2.9%를 기록하고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73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며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다.

[그림 19] 금, 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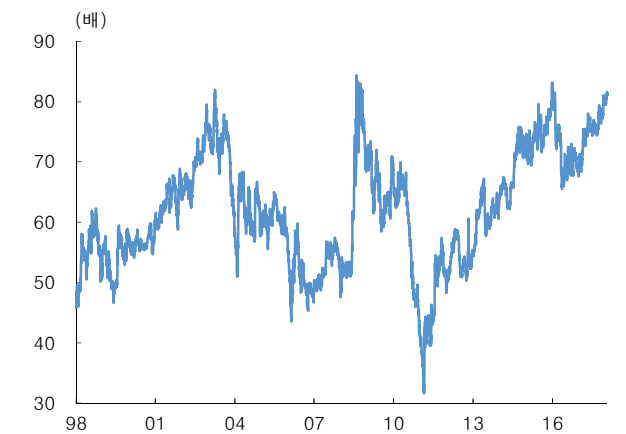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0] 백금, 팔라듐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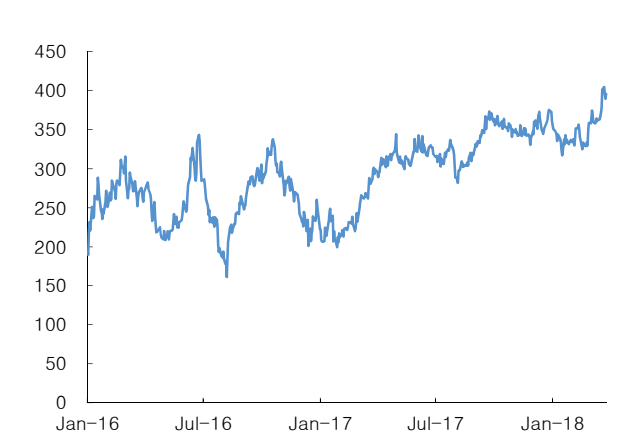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1] 금/은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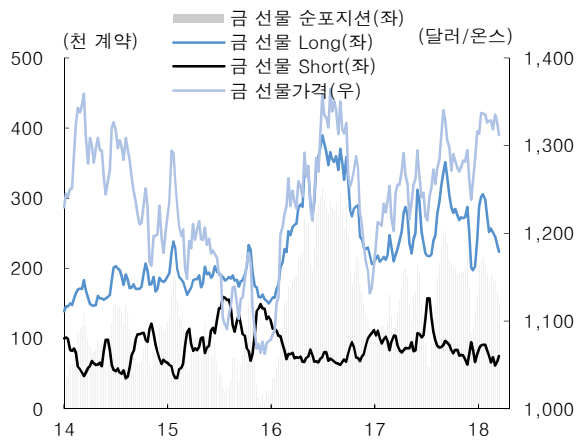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2] 금-백금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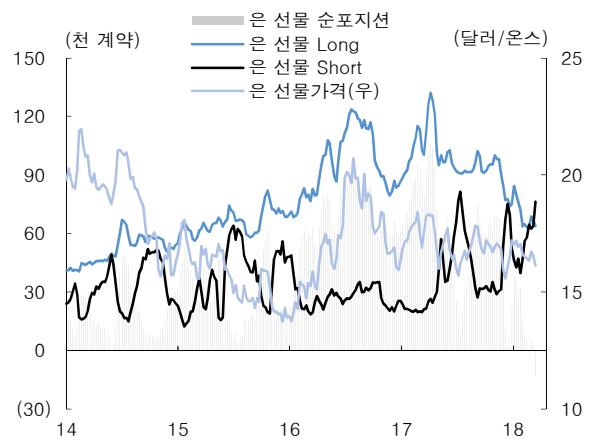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3] 금 투기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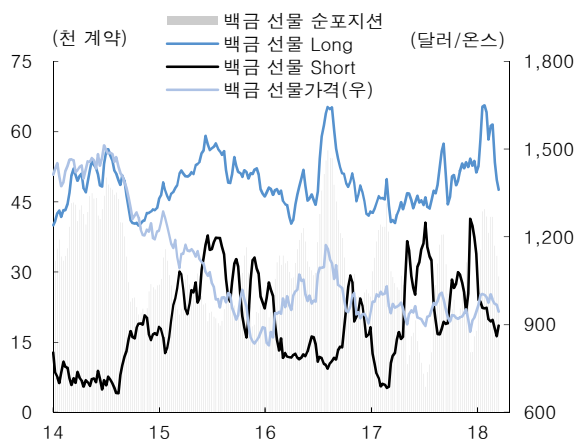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4] 은 투기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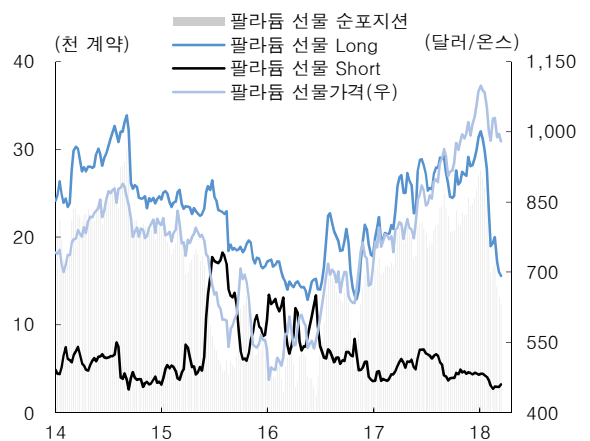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5] 백금 투기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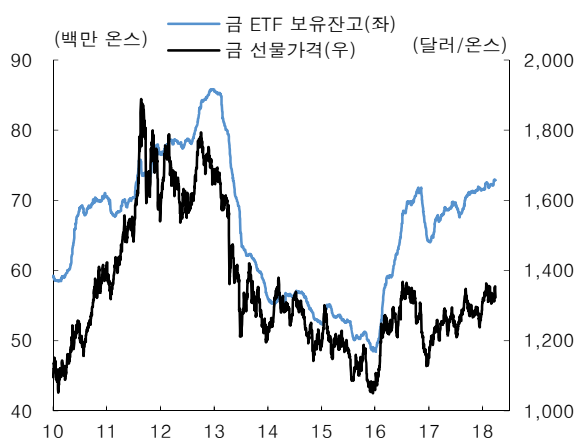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6] 팔라듐 투기 포지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7] 금 ETF 금 보유량 및 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8] 은 ETF 은 보유량 및 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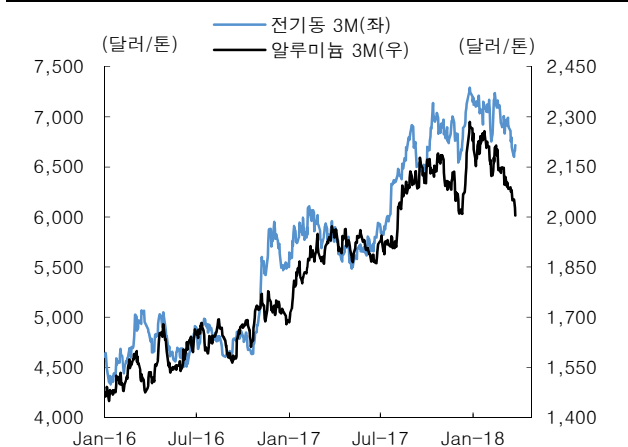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비철금속: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되고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비철금속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니켈(+2.7%), 납(+2.3%), 아연(+1.8%), 주석(+1.6%), 전기동(+0.8%)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알루미늄(-2.2%)은 하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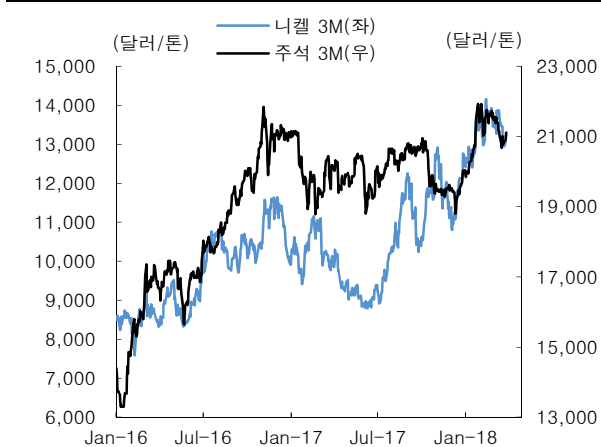
그 동안 비철금속 가격 약세의 주요 이유 중 하나였던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비철금속 가격은 반등세를 보였다. 특히 니켈은 박스권 하단에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었다. 게다가 필리핀 정부가 니켈 광산에 대한 환경 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광산 가동 중지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된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그 동안 감산 명령에도 알루미늄 생산량 감소가 기대보다 낮고 재고 역시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알루미늄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그림 29] 전기동, 알루미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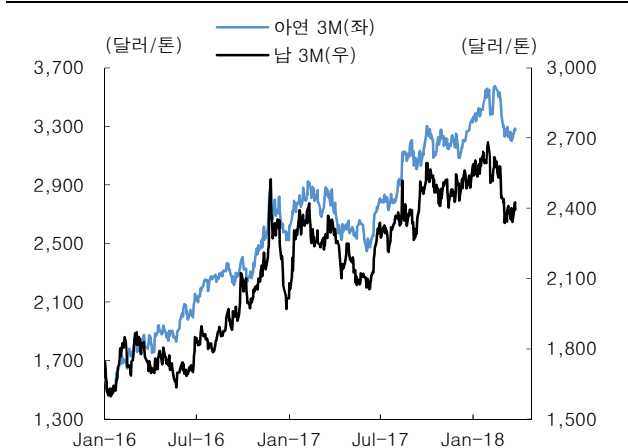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0] 니켈, 주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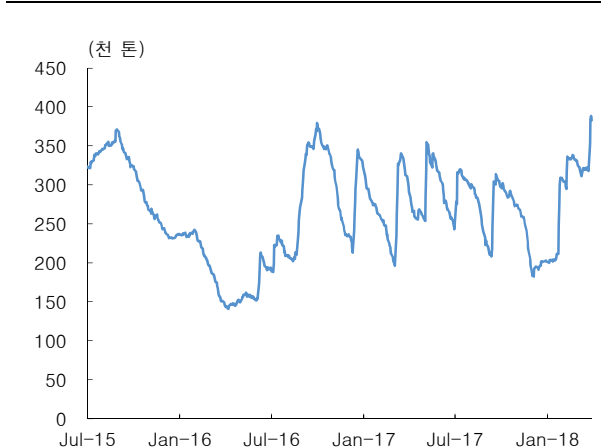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1] 아연, 납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2] LME 전기동 재고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3〉 주요 원자재 ETF

구분	ETF명	시총 (백만 달러)	일평균거래대금 (백만 달러)	증가 (달러)	1W (%)	1M (%)	3M (%)	YTD (%)	기초지수	운용보수 (%)	추적 오차	레버 리지
원유	UNITED STATES OIL FUND LP	1,833	260	13.09	1.1	5.8	9.0	9.0	WTI	0.72	-	-
	IPATH S&P GSCI CRUDE OIL TR	587	13	7.31	1.5	7.7	11.8	11.8	SPGSCCLTR	0.75	7.4	-
	UNITED STATES 12 MONTH OIL	83	1	22.64	1.2	6.6	8.2	8.2	WTI	0.79	-	-
	PROSHARES ULTRA BLOOMBERG	411	74	27.5	2.3	11.7	17.3	17.3	BCOMCL	0.95	26.6 Long X2	-
	UNITED STATES SHORT OIL FUND	10	0	51.72	-1.1	-5.9	-8.9	-8.9	WTI	0.75	- Short X1	-
	PROSHARES ULTRASHORT BLOOM	200	42	19.95	-2.5	-12.3	-18.8	-18.8	BCOMCL	0.95	80.5 Short X2	-
	TIGER 원유선물(H)	90,807	1,109	4705	-0.8	3.0	8.4	8.4	SPGSCCLP	0.70	16.5	-
	TIGER 원유인버스선물(H)	8,946	160	9940	0.4	-4.0	-9.5	-9.5	SPGSCCLP	0.70	48.4 Short X1	-
천연가스	US NATURAL GAS FUND LP	367	115	22.55	3.1	1.3	-3.3	-3.3	Natural Gas	1.27	-	-
	VELOCITYSHARES 3X LG NAT GAS	515	214	58.08	9.3	3.3	-20.2	-20.2	SPGSNGP	1.65	67.9 Long X3	-
	VELOCITYSHARES 3X INVERSE NA	170	185	27.73	-9.4	-5.7	0.8	0.8	SPGSNGP	1.65	142.1 Short X3	-
석탄	VANECK VECTORS COAL ETF	93	2	15.71	0.3	-8.9	-2.0	-2.0	MVKOLTR	0.59	4.3	-
에너지 기업	ENERGY SELECT SECTOR SPDR	17,353	1,137	67.41	0.3	1.0	-6.7	-6.7	IXETR	0.13	0.5	-
	VANGUARD ENERGY ETF	3,896	33	92.37	0.3	1.4	-6.6	-6.6	M5US5ENI	0.10	0.3	-
	SPDR S&P OIL & GAS EXP & PR	2,284	591	35.22	1.4	6.5	-5.3	-5.3	SPSIOPTR	0.35	0.5	-
	ISHARES U.S. ENERGY ETF	954	25	36.97	0.4	1.2	-6.8	-6.8	DJUSENT	0.43	0.5	-
	ISHARES GLOBAL ENERGY ETF	1,157	10	33.98	1.1	1.7	-4.4	-4.4	SPG12CEN	0.47	1.5	-
귀금속	POWERSHARES DB PREC METALS	178	1	38.65	-0.3	0.3	0.4	0.4	DBCMEPEM	0.78	1.7	-
	ETFS PHYSICAL PRECIOUS METAL	382	2	64.28	-0.6	-0.9	-1.1	-1.1	GLTRI	0.60	6.2	-
금	SPDR GOLD SHARES	36,077	1,043	125.79	-0.2	0.6	1.7	1.7	GOLDLNPM	0.40	4.1	-
	ISHARES GOLD TRUST	11,569	164	12.73	-0.2	0.6	1.8	1.8	GOLDLNPM	0.25	4.1	-
	ETFS PHYSCL SWISS GOLD SHRS	1,129	7	128.31	-0.2	0.6	1.7	1.7	GOLDLNPM	0.39	4.0	-
	VELOCITYSHARES 3X LONG GOLD	121	9	11.41	-1.0	1.1	2.4	2.4	SPGSGCP	1.35	21.9 Long X3	-
	KODEX 골드선물(H)	54,230	672	9860	-1.3	0.4	1.8	1.8	SPGSGCTR	0.68	6.0	-
금광업체	VANECK VECTORS GOLD MINERS	8,252	963	21.98	2.2	3.0	-5.4	-5.4	GDMNTR	0.52	3.9	-
	DIREXION DAILY GOLD MINERS	1,312	190	24.4	5.8	7.3	-23.0	-23.0	GDM	0.95	46.1 Long X3	-
	DIREXION DAILY JR BULL GOLD 3X	757	196	13.56	-0.2	4.6	-23.6	-23.6	MVGDXJTR	0.95	49.7 Long X3	-
	DIREXION DAILY GOLD MINERS	160	130	25.75	-7.0	-10.2	8.6	8.6	GDM	0.95	90.5 Short X3	-
은	ISHARES SILVER TRUST	5,216	137	15.41	-0.2	-0.3	-3.6	-3.6	SLVRLN	0.50	11.0	-
	ETFS PHYSICAL SILVER SHARES	327	3	15.94	-0.3	-0.3	-3.5	-3.5	SLVRLN	0.30	10.9	-
	PROSHARES ULTRA SILVER	224	5	31.09	-0.7	-1.1	-8.2	-8.2	SLVRLN	0.95	24.7 Long X2	-
	VELOCITYSHARES 3X LNG SILVER	268	32	9.91	-1.3	-2.2	-14.6	-14.6	SPGSSIP	1.65	37.2 Long X3	-
	KODEX 은선물(H)	25,344	182	3840	-0.1	0.0	-2.3	-2.3	SPGSSITR	0.68	9.9	-
은광업체	GLOBAL X SILVER MINERS ETF	413	4	30.72	2.1	3.9	-5.9	-5.9	SOLGLOSI	0.65	2.6	-
백금	ETFS PHYSICAL PLATINUM SHRS	527	4	88.65	-2.0	-5.2	0.2	0.2	PLTMLNPM	0.60	7.2	-
팔라듐	ETFS PHYSICAL PALLADIUM SHAR	226	3	90.53	-3.4	-8.9	-10.9	-10.9	PLDMLNPM	0.60	11.1	-
비철금속	POWERSHARES DB BASE METALS	349	5	18.2	0.0	-4.4	-6.2	-6.2	DBCMEIM	0.82	2.2	-
전기동	IPATH BLOOMBERG COPPER SUBIN	54	2	34.09	0.0	-3.4	-9.2	-9.2	BCOMHGTR	0.75	2.2	-
	TIGER 구리선물	7,984	27	6795	-2.6	-6.3	-7.6	-7.6	SPGSCO	0.85	8.2	-
	KODEX 구리선물(H)	5,634	72	6260	1.0	-3.7	-8.5	-8.5	SPGCHGTR	0.68	9.9	-
니켈	IPATH BLOOMBERG NICKEL SUBIN	14	0	16.28	1.8	-2.8	5.8	5.8	BCOMNTR	0.75	7.6	-

주: TIGER, KODEX ETF의 시총, 일평균거래대금 단위는 백만원
 자료: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